

부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회의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설시스템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Shared Acquisition System of Occidental Journals』 of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Cooperation Council in Pusan-Kyungnam Area 』

송 영 희(Hee-Young So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운영방법 |
| II. 분담수서의 이론적 배경 | 1. 의무분담금 배정방법 |
| III. 부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정보 교류협회의
분담수서시스템 개발과정 | 2. 의무분담구독잡지 배정방법 |
| | V. 운영현황 및 분석 |
| | VI. 요약 및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6개 사립대학 도서관으로 구성된 부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회의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시스템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분담수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이 협의회가 운영하는 분담수서시스템의 개발과정, 운영방법,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 효과 및 문제점과 유용성을 규명하였다.

주제어: 공동수서, 대학도서관, 분담수서시스템, 수서시스템, 외국학술잡지, 협력수서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current statues of the shared acquisition system of occidental journals in 6 university libraries belonging to Pusan-Kyungnam Area University Information Cooperation Council. The study discusses theoretical background of a shared acquisition in general and historical development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lso the study examines the usefulness, effectiveness and problems of the system.

keyword: acquisition, cooperative acquisition, cooperative collection, occidental journals, shared system, university libraries

* 이 논문은 2002 학년도 동의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접수일 : 2002. 11. 20 •최초심사일 : 2002. 11. 24 •최종심사일 : 2002. 11. 25

I. 서 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적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적 한계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구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도서관 자료 중 학술잡지는 단행본에 비해 보다 최신의 연구성과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잡지는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며 특히 학문의 발달 속도가 빠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더욱 요긴한 자료이다. 이와 같은 학술잡지의 정보가치 증대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학술잡지의 구입 비중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현대의 도서관들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보다 다양한 학술잡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더불어 학술잡지, 특히 외국학술잡지의 구독료 상승은 도서관의 자료구입예산 중에서 학술잡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도서관의 재정 문제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꾸려가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구독학술잡지의 종수를 축소하거나 기타 학술잡지와 관련한 대이용자 정보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도서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서관간의 협력을 통한 분담수서를 시도하였고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협력을 보다 원활하고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분담수서란 공동수서, 협력수서라고도 하며 자원공유의 관점에서 2개 이상의 도서관이 협약하여 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것은 가능한 도서관간의 중복된 자료 수집을 배제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다양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분담수서가 특히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부터이다. 당시 지역 대학도서관들은 협의회를 결성하고 외국도서 구입 때문에 도서관에까지 과급된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분담수서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졌다. 도서관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협의회는 합의를 바탕으로 각 도서관의 수서 담당자들로 이루어진 분담수서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지역별 대학도서관간의 협력시스템인 분담수서시스템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지역대학도서관 협의회 중 하나인 부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역시 소속 도서관들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환율급등으로 인해 외국학술잡지 구독에 재정적 어

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일차적으로 정보교류협의회 소속의 경성대학교도서관, 동아대학교도서관, 동의대학교도서관, 신라대학교도서관, 인제대학교도서관이 참여한 분담수서실무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4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 분담수서업무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쳐 합의된 결과들이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수서규정안이 작성되고 1999년 1학기부터는 실질적인 분담수서가 시행에 들어갔다.

2000년에는 초기 실무위원회에 관여는 하였지만 분담수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동아대학교도서관이 새로 참여하였고 2001년에는 울산대학교 도서관까지 가입하게 됨으로써 현재는 부산·경남지역의 6개 사립대학교도서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정보교류협의회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시스템은 비록 경제적인 이유에서 추진되었지만 도서관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경남지역대학교도서관 정보교류협의회 소속 대학도서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시스템에 한정하여 시스템의 개발과정, 운영방법, 현황을 조사하고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스템의 유용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정 지역에서의 사례는 이와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 또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도서관들간의 상호협력체를 구축하는데 요긴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분담수서시스템 개발에 관여하였던, 그리고 현재 관여하고 있는 담당자들과의 면담, 학술지 분담수서 운영위원회, 분담수서담당, 전산담당 실무자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 및 유인물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이 분담수서시스템의 시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시행도중 새로운 회원도서관이 등장하면서 의무구독잡지배정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고 제시된 통계자료의 항목이 협력도서관간 중복자료의 분담수서와 분담수서를 통한 예산절감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분석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II. 분담수서의 이론적 배경

오래 전부터 도서관들은 보다 효율적인 이용자 봉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시도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자원공유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서지정보 등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개별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자원공유의 목적은 “더 많은, 더 나은, 더 빠른, 더 쉬운 접근을 제공하는 것”¹⁾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에는 장서를 비롯하여 시설, 설비, 기술, 인력, 직원의 전문지식 및 기술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도서관간의 협력 중 가장 일반적으로 시도되었던 협력의 형태는 서지 접근, 상호대차, 분담수서, 중앙보존센터 등이었다.

도서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 자원공유의 본질은 각 도서관이 기본적인 임무를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자료를 타 도서관의 자료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관으로 하여금 자원의 공유를 불가피하게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다. 정보의 양적 팽창은 개체 도서관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도서관도 자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도서관들은 전략적 상호협력을 통해 비 핵심자료의 구입은 물론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소장하지 못한 자료의 접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도서관간의 분담수서 역사가 그다지 짧지는 않지만 이러한 협력시스템들이 크게 성공한 사례는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협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패의 사례들은 협력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또한 도서관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협약의 체결이 쉽지 않았던 것이 그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분담수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는 중앙집중식 분담수서방식으로 협력도서관들이 지원하는 공동분담금을 이용이 낮은 자료나 고가의 자료 수집에 사용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독립된 기관이 수서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체 도서관들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분담구독잡지를 배정할 필요가 없어 협력도서관 간의 갈등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수집한 자료를 보관할 공동자료보존센터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중앙집중식 분담수서시스템으로는 CRL(Center for Research Libraries)과 Hampshire InterLibrary Center 등을 들 수 있다. CRL은 회원대상을 전국의 연구도서관들로 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둔 바 있으나, Hampshire InterLibrary Center는 Massachusetts시의 Hampshire 군에 있는 도서관들로 구성하고 1950년 Northeast에 지역자료보존도서관을 설립하였으나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분산식 분담수서방식으로 협력도서관간 자료를 분담하여 수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의 중복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논리적

1) B.M. Allen. *Conspectus Collection Management : the Conspectus Approach.*, (New York: Neal Schuman, 1994), p.9. Quoted in Edward Shreeves, "Is there a Future for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Library Trends*, vol. 45 no. 3 (1997), p.377.

배분계획(주제에 의한 분담)을 통해 중복구입을 배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²⁾

분산식 분담수서는 일차적으로 협력도서관 간에 수집해야 할 자료의 주제를 배정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 특히 협력도서관들 중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일 경우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중복구입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다. 대표적인 분산식 분담수서시스템은 Farmington Plan과 LACAP(Latin American Cooperation Acquisition Plan)으로 이 계획들 역시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Farmington Plan은 미국의 약 50여 개 대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 미국농학도서관, 미국의학도서관 및 수개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당시 출판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자료를 미국 내 어디에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부는 확보하자는 계획이었다. 수집 범위는 주제별, 지역별로 여러 도서관이 분담하였다. 이 계획은 1948년에 시작되어 1972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개별도서관에 배정한 의무분담자료의 주제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다. 즉 개별도서관의 관심 분야에 따라 배정하였던 의무분담 주제분야가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크게 변하였고 어떤 도서관은 배당 받은 의무분담주제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면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는 목적 때문에 도서관별로 의무분담 주제를 고정하여 배정하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었다.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간에 시행되었던 Scandia Plan 역시 Farmington Plan과 같은 경험을 겪었는데 변화하는 요구와 의무분담주제 배정문제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또 하나의 분담수서 프로그램인 LACAP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출판되는 연구자료의 확보와 비용분담을 목적으로 추진된 영리적 사업계획이었다. 그러나 몇몇 미국 내 연구도서관들이 라틴 아메리카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지만 이 계획 역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LACAP이 지속되지 못한 중요한 요인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도서관들이 입수한 대부분의 자료가 이용이 낮은 자료였다. 따라서 충분하지 못한 예산에서 이용이 낮은 자료는 항상 구입 제외자료에서 최우선 대상 분야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계획을 시작하였던 시기에 많은 대학들이 이 분야의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분야가 발전될 분야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자 대학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가장 최근에 수립된 LACAP 계획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LACAP 참여에 대학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서적상들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신뢰할 만한 지역 서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원하기만 하면 싼 가격으로 직접, 확실하게 구입이 가능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³⁾

2) Louis Kaplan, "Library Cooperation in the United State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15 (New York: Mercel Dekker, 1975), p. 251.

3) G. Edward Evans,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1995), p. 450.

반대로 성공을 거둔 분담수서 프로그램은 미국의 CRL을 들 수 있다. 이 기관이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성공을 거둔 것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개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의 회원 도서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 계획은 이용이 높은 자료보다는 이용이 낮은 자료를 구입하였으며 재정적 자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아직 CRL의 소장자료가 참여도서관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일한 자료는 많지 않지만 CRL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자료 소장처로서 발전되고 좋은 배포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 도서관들은 이용율이 낮은 자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대신 CRL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CRL의 활성화는 개별 도서관으로 하여금 이용율이 낮은 자료의 중복 입수를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다.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System의 공동분담구입프로그램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이미 15년간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캠퍼스 도서관간 불필요한 중복잡지의 구독을 줄이고 주제분담을 통해 캠퍼스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구입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Stanford 대학은 이 프로그램의 정회원이지만 분담 지원금은 주 전역, 지역을 기반으로 California 대학 캠퍼스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⁴⁾

Los Angeles County의 신학대학도서관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원하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도서관들의 자료구입예산을 통합하여 신학분야의 학술잡지를 구독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각 신학대학도서관 관장들을 주축으로 대학과 도서관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으나 실제 이용자인 교수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심도 있고 교과목과 관련이 없는 분야는 타 도서관에 의존하고 반대로 자관의 자료는 특정주제에 집중해서 장서를 구성하기보다는 일반자료로 구성된 장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응이 여러 대학에서도 나타나게 되면 아무리 사서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⁵⁾

분담수서는 어떤 이유에서 시행이 되었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간에 협력 도서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용자들의 이해가 없는 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사례에서 실패요인들을 분석하고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하나 하나의 실행사항들 중 그 효과가 큰 것이나, 실행에 있어 큰 장애가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도 분담수서에 대한 논의 및 시행이 지역의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4) Ibid., p. 452.

5) Ibid., pp. 453-455.

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로 인한 환율인상 폭이 급등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5개 도서관, 즉 경북대학교도서관, 계명대학교도서관, 대구대학교도서관, 영남대학교도서관, 효성가톨릭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분담수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의 5개 대학도서관들은 1997년 12월에 각 대학교도서관 관장들이 모여 이미 체결한 외국학술잡지의 구독이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하여 5개 대학도서관간 공동으로 외국학술지를 구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각 도서관의 실무자들이 회의를 거쳐 5개 대학도서관에서 중복구독중인 외국학술지를 대상으로 분담하여 구독할 것을 결정하고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에 관한 협의를 작성하였다. 시행 첫해인 1998년 분담수서를 통해 경북대학교도서관이 339종, 계명대학교도서관이 256종, 대구대학교도서관이 296종, 영남대학교도서관이 267종 그리고 효성가톨릭대학교도서관이 265종의 중복구독잡지를 배제하였고 절감금액도 모두 합해서 약 100만불에 이르렀다.⁶⁾⁷⁾

이외에도 현재 지역별로 대학도서관들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협의회 소속 도서관간에 분담수서를 통해 외국학술잡지를 공동구독하고 있다.

학술지는 아니지만 도서를 대상으로 분담수서를 하는 도서관들도 등장하였다. 대구지역의 9개 공공도서관은 도서를 대상으로 주제를 분담하여 도서관별로 자료를 집중하여 수집하고 있다.⁸⁾

지역대학도서관 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담수서시스템 운영방식은 분담수서 대상을 외국학술잡지로 한정하고 주제별 분담방식이 아닌 분산식 분담방식을 변형하여 중복자료의 가격을 기반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의 중복구입을 줄임으로서 보다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컴퓨터 기술 등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접근 문제를 해결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 정보교류협의회 분담수서시스템 개발과정

부산·경남지역 정보교류협의회는 1996년 8월 신라대학교도서관이 부산 북부지역 대학

6) 정갑진, 외국학술잡지 공동수서에 관하여, 1998.5 (미출간), pp.1-4.

7) S. B. Kwon, 정우숙님의 공동수서에 대한 답신/대구 경북지역 분담수서에 대해,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648.html> (2002, 10. 16).

8)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서비스, <http://www.tglnet.or.kr>(2002, 12, 11), pp.1.

도서관간의 단행본 상호대차 협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발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동아대학교도서관, 동의대학교도서관, 동서대학교도서관, 신라대학교도서관의 실무과장들이 주축이 되어 협의회 결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동서대학교도서관이 자진 탈퇴하였고 대신 경성대학교도서관이 참여하였다. 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지는 않았지만 일차적으로 각 대학교 도서관 실무자간에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되었다. 합의 내용은 협의회 소속 대학간에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상호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1997년 8월에는 부산·경남지역정보교류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동아대학교도서관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협의회 출범 후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은 4개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학술지를 포함하여 소장 학술지 목차를 검색할 수 있는 학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은 주로 협정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후 환율 급등으로 도서관들이 연속간행물 구독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협의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속간행물을 대상으로 한 분담수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8년 5월에는 정보교류협회의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학술잡지 분담수서에 대한 연구발표와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발표된 내용은 이미 타 지역의 대학도서관교류협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담수서의 운영현황, 이 협의회 소속 도서관들의 학술잡지 중복현황 분석, 분담수서시 예상되는 비용절감 및 이용 가능한 학술잡지의 종수에 관한 것 등이었다. 이어서 학술지 분담수서 실무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때 참여한 도서관은 기존의 협의회 소속 4개 도서관과 1998년 가입한 인제대학교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이었다.

1998년 5월 1차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계속된 3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학술잡지 분담수서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1차 실무위원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⁹⁾

- 1) 각 대학별 분담율 배분 및 예산 : 대학별 분담율 배분은 중복비율에 의해 분담하며 배분은 의무 구입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배분한다.
- 2) 기술지원방안 및 예산 : 공동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목차검색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 3) 핵심잡지 선정방안 : 핵심잡지는 각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잡지에 대해서 순수 예산 절감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 4) 분담수서 대상 잡지 선정방안 : 분담수서 대상 잡지는 1998년도 구독분 중 중복되

9)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 정보교류협의회, 학술잡지 공동수서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실무위원회 모임, (1998.5.27).

는 잡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구독 학술잡지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하순까지 리스트를 제출하여 추가로 선정한다. 각 대학별 의무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1차로 임의 배정한 종수에 대한 리스트를 각 대학에서 검토하여 차기회의시 배분을 확정한다. 전자저널에 대해서는 분담수서 대상잡지로 인정하되 실제 배분시 전자저널을 구입하지 않는 대학에 배분한다.

- 5) 상호대차시 복사요금은 공동수서에 포함된 학술잡지에 한해서 무상으로 복사를 제공하며 그 외의 학술잡지에 대해서는 1장 당 50원으로 책정한다.

2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전자저널 배분에 관한 내용과 중복학술잡지 배정에 관한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전자저널의 중복구입현황 및 의무구독자료에 대한 중복내용이 분석되었고 협약 초안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전자저널도 분담수서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동아대학의 의과대학도서관 구독잡지에 대해서는 상호대차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재조정하기로 하였다.¹⁰⁾

3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동아대학이 상호대차에만 참여하고 분담수서시스템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아대학을 제외한 4개 대학에 대한 중복구독학술잡지 배정 및 조정작업을 완료하였다.¹¹⁾

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의무분담구독자료 배정에 대한 확인 작업과 학술잡지 분담수서 협약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¹²⁾

1998년 9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학술잡지 분담수서는 실무위원회의 토의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과 작성된 학술잡지 분담수서 규정을 회람하도록 의결하였다.

1999년 3월부터는 분담수서시스템이 가동되어 협력 대학간에 분담수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자잡지의 분담수서는 보류되었다. 분담수서 실무위원회에서는 전자매체까지도 포함하도록 논의되었으나 의무분담 전자잡지 배정과정에서 참여 도서관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결국 분담수서의 대상은 참여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는 구미 학술잡지 중 학술적 성격을 지닌 정기, 부정기로 발행되는 인쇄매체로 한정되었다.

2000년 1학기부터 동아대학교 도서관이 다시 분담수서시스템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2001년에는 울산대학교 도서관도 참여하게 되면서 2002년 1학기부터는 분담수서시스템의 회원교가 6개교의 도서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0)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 정보교류협의회, 학술잡지 공동수서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실무위원회 모임, (1998.6.3).

11)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 정보교류협의회, 학술잡지 공동수서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실무위원회 모임, (1998 6, 11).

12)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 정보교류협의회, 학술잡지 공동수서 실무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실무위원회 모임, (1998.7, 24).

분담수서를 통한 협력도서관간의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해 이 협의회는 PAUJIS (Pusan Area University Journal Inform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6개 대학교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 1,500여종을 포함한 14,000여종의 외국학술잡지에 대한 목차검색 시스템으로 Intranet을 통해 키워드, 저자명, 잡지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소장된 원문의 복사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PAUJIS의 목차검색시스템은 데이터의 부족, 데이터의 신속한 업그레이드 문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할 독립적인 서버의 부재 등으로 그 이용 측면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2000년 8월 협의회는 이를 대신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ORSA(Korea Resource Sharing Alliance: 외국학술잡지공동활용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는 KORSA의 국내 70여개 대학교서관 및 정보자료실의 외국학술잡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목차검색을 하고 있다.¹³⁾

IV. 운영방법

부산·경남지역 대학교서관 정보교류협의회 분담수서 방식은 일종의 분산식 분담수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분담수서 방식은 의무분담 구독자료를 주제별로 배정하는 분산식 분담수서방법과는 달리 중복구독잡지 종수를 기본으로 의무분담금을 산출하고 의무분담금 내에서 의무구독대상 학술잡지를 참여도서관에 임의로 배정하는 형태를 도입하였다.

이 협의회는 분담수서시스템은 분담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아래 분담수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실무위원은 참여대학교서관의 정기간행물 담당 사서들로 구성하였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분담수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특히 분담수서의 핵심 사안인 중복구독잡지 조사, 의무분담금 및 의무분담구독잡지 배정작업 참여도서관간의 의무분담구독잡지 조정업무 등 운영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실무자 입장에서 협의하며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학술잡지 분담수서규정 중 분담수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 1) 이 규정은 부산·경남지역대학교서관정보교류협의회 협약 목적에 따라 참여대학들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학술잡지 공동구매 및 이용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 규정에서 명시하는 학술잡지는 종이 또는 전자매체를 막론하고 정기·부정기

13) 부산·경남지역대학교서관 정보교류협의회, 운영위원회 경과보고 (2000, 10, 9).

14) 부산·경남지역 대학교서관 정보교류협의회. 『학술잡지분담수서규정』, (1998. 10, 1).

- 로 발행되며 참여대학에서 구독하는 학술적 성격을 가진 외국학술잡지를 말한다.
- 3) 참여대학은 분담수서에도 불구하고 학술잡지 구독종수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4) 참여대학은 매년 8월까지 차기연도 구독예정 학술잡지를 핵심잡지와 분담구독 대상잡지로 구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한다.
 - 5) 핵심잡지는 참여대학이 중복 구독할 수 있으나 분담구독대상 잡지는 특정대학이 구독하여 공동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담수서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는 전자잡지가 분담수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쇄형태의 서양학술잡지로만 한정되었다. 전자잡지의 대부분이 참여 도서관들에서 중복구독 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잡지가 분담수서에서 제외된 것은 도서관별로 의무분담구독 잡지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분담수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분담수서 대상이 되는 중복구독잡지를 선정하고 개별도서관에 의무분담금과 의무분담구독잡지를 배정하는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것이 난해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의무분담금 배정방법

개별도서관의 의무분담금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도서관간 중복잡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대학도서관들은 매년 8월 차기연도 구독예정 서양잡지목록을 핵심잡지와 분담대상잡지로 구분하여 작성해서 정보교류협회의 회장교 도서관에 제출한다. 회장교의 간사는 개별도서관들이 제출한 구독예정학술잡지목록을 취합하여 중복구독잡지목록을 작성한다. 중복구독잡지가 확인되면 도서관별로 중복구독잡지 당 가격을 확인하고 중복구독잡지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개별도서관의 총 중복구독잡지금액을 산출해 낸다. 이런 방법으로 산출된 개별도서관의 총 중복구독잡지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중복구독잡지금액을 계산하고 개별도서관의 총 중복구독잡지 금액을 전체 중복구독잡지 금액으로 나누어 중복비율을 산출하여 개별도서관에 의무분담금을 배정한다.

개별 도서관에 배정될 의무분담금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¹⁵⁾

개별 도서관의 의무분담금=개별도서관의 총 중복구독잡지금액×중복비율

* 중복비율=개별도서관의 총 중복구독잡지 금액/전체 중복구독잡지 금액×100(%)

15) 의무분담금 배정방법에 대해 문의. D대학도서관 사서와 전화인터뷰. (2002, 10, 15 오후 3시 30분)

따라서 개별도서관의 총 중복구독잡지금액과 중복비율을 곱하면 의무분담금이 산출된다. 그러나 실제분담금액은 의무부담금 내에서 잡지가격을 기본으로 의무구독잡지를 분담하기 때문에 잡지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의무분담구독잡지 배정방법

의무분담 구독잡지를 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¹⁶⁾

참여도서관들이 매년 제출한 차기연도 구독예정 외국 학술잡지목록을 모두 취합하여 중복구독 학술잡지 목록을 작성하고 여기에서 의무분담 대상구독잡지를 선정한다. 중복구독종수와 잡지가격을 기반으로 의무분담금 계산 공식에 따라 개별도서관의 의무분담금이 산출되면 의무분담금 내에서 의무분담구독잡지를 임의로 배정한다. 이런 배정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참여도서관 모두가 일반 종합대학이라 특정 주제를 임의로 배정하기에는 대학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시행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중복구독잡지는 대개 2개 도서관에서 중복되며 3개 이상의 기관에서 중복구독 되는 잡지수(약 50종)가 생각보다 적어 중복잡지구독기관 간에 합의를 거쳐 잡지가격에 맞추어 의무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¹⁷⁾

임의로 배정한 의무구독잡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간의 조정 과정을 거친다. 두개 도서관간의 이의는 합의를 통해 의무분담잡지를 선정하고 비슷한 가격의 다른 잡지와 서로 바꿀 수 있다. 세 도서관 이상간의 중복구독잡지는 한 기관 만 의무분담구독하고 나머지 기관은 구독을 중단할 수 있다. 만약 임의 배정 받은 의무분담구독잡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교에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한다.

각 도서관이 제출한 핵심잡지는 중복구독목록에 포함되더라도 가능한 한 의무분담구독잡지에서 제외한다. 핵심잡지의 선정기준은 참여 대학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 이용통계를 참고하여 이용빈도가 높은 학술잡지 2) 타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희소성이 높은 학술잡지; 3) 오랫동안 구독한 학술잡지; 4) 교수들이 추천한 학술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는 잡지들이다.

16) D대학 사서와 의무분담구독학술잡지 배정방법에 대한 인터뷰, (2002, 10, 15 오전 11시, 장소 D대학 도서관 전자정보실).

17) 의무분담구독잡지 배정을 의무분담액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에 관해 D대학 사서와 면담. (2002, 10, 15, 오후 1:30 오후).

V. 운영현황 및 분석

분담수서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협력도서관간에 자료의 중복구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분담 구입함으로써 자료구입 예산의 절감, 중복잡지구독 억제 구독잡지종수의 증가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의회의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업무 시행 첫해인 1999년은 <표 1>에서와 같이 학술잡지의 구독비용절감, 중복구독잡지종수의 감소 면에서 참여도서관 모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1999년도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현황¹⁸⁾

구분 \ 도서관명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합 계
구독종수	397종	323종	419종	537종	1,676종
구독금액	\$219,745.20	\$206,313.24	\$89,220.23	\$272,606.63	\$787,685.30
중복구독종수	190종	154종	139종	179종	662종
중복금액	\$92,335.38	\$82,652.68	\$34,057.78	\$94,564.63	\$303,610.47
중복비율	30.41%	27.22%	11.22%	31.15%	100.00%
의무분담금	\$40,226.09	\$36,006.38	\$14,841.72	\$41,204.96	\$132,279.15
의무구독종수	74종	75종	61종	72종	282종
절감구독종수	116종	79종	78종	107종	380종
실제분담금	\$40,141.34	\$36,239.39	\$14,796.95	\$41,101.47	\$132,279.15
절감금액	\$52,109.29	\$46,646.30	\$19,216.06	\$53,359.67	\$171,331.32

<표 1>에 나타난 것과 4개 대학도서관의 총 외국학술잡지 구독종수는 1,676종이며 그 중 중 중복구독잡지종수는 662종이다. 여기에는 참여도서관들이 중복구독을 원하는 핵심 잡지들이 포함되어있다. 이것을 도서관별로 나누어 보면 경성대학교도서관이 190종으로 제일 많았고 인제대학교도서관 179종, 동의대학교도서관 154종 그리고 신라대학교도서관 139종으로 참여도서관들이 구독하는 학술잡지의 약 40% 정도가 중복구독잡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담수서를 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구독종수는 의무분담금에 따라 분담금 내에서 잡지가격에 맞추어 임의로 배정되기 때문에 각 도서관의 의무구독종수는 절감비용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의무구독종수는 동의대학교도서관이 75종, 경성대학교도서관 74종, 인제대학교도서관 72종, 신라대학교도서관이 61종으로 나타나 도서관간 차이가 적었다. 그러나 절감구독종수는 경성대학

18)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1999년 분담수서 참여 4개 대학학술지 구독 현황 분석표 (1998, 10).

교도서관 116종, 인제대학교도서관 107종, 동의대학교도서관 79종 그리고 신라대학교도서관이 78종으로 도서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의 측면에서는 인제대학교도서관 53,359.67 달러, 경성대학교도서관 52,109.29 달러, 동의대학교도서관 46,646.30 달러, 신라대학교도서관 19,216.06 달러를 각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금액을 중복구독금액과 비교하여 비용절감효과를 각 도서관 별로 산출해보면 동의대학교도서관 56.44%, 경성대학교도서관 56.43%, 인제대학교도서관 56.43%, 신라대학교도서관 56.42%로 4개 도서관 모두 절감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2000년도는 동아대학교도서관이 분담수서시스템에 참가하게 되면서 5개 도서관의 중복구독자료가 재조사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중복구독종수가 662종에서 565종으로 97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9 년도에 중복구독종수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2〉 2000년도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 운영현황¹⁹⁾

구분 \ 도서관명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합 계
중복구독종수	101종	176종	107종	85종	96종	565종
중복금액	\$43,755.25	\$71,998.79	\$53,774.68	\$19,601.75	\$47,327.57	\$236,458.04
중복비율	18.51%	30.45%	22.74%	8.29%	20.01%	100.00%
의무분담금	\$31,151.11	\$51,245.33	\$38,269.92	\$13,951.52	\$33,675.51	\$168,293.39
의무구독종수	50종	117종	77종	50종	76종	370종
절감구독종수	51종	59종	30종	35종	20종	195종
실제분담금	\$32,285.14	\$46,346.08	\$37,891.29	\$14,984.06	\$36,786.83	\$18293.293
절감금액	\$11,470.11	\$25,652.71	\$15,833.39	\$ 4,617.69	\$10,540.75	\$68,164.65

〈표 2〉는 이에 따라 재조정된 2000년도의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 운영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의무분담구독잡지종수는 5개 도서관이 분담하면서 282종에서 370종으로 88종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동아대학교도서관이 분담수서에 참여하면서 의무구독잡지를 4개 도서관이 의무구독잡지로 배정받지 않은 학술잡지를 동아대학교도서관이 의무구독종수로 배정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외의 4개 도서관은 의무구독종수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절감구독종수도 줄어들어 절감금액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중복구독금액과 절감금액을 비교하여 비용절감효과를 각 도서관 별로 산출해보면 동아대학교도서관 35.6%, 동의대학교도서관 29.4%, 경성대학교도서관 26.2%, 신라대학교도서관 23%, 인제대학교도서관 22%의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감비용 효과 역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2000년 의무구독학술잡지(1999, 10)

<표 3>은 2001년도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2001년도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 현황²⁰⁾

도서관명 구분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합 계
중복구독종수	10종	25종	19종	18종	19종	91종
중복금액	\$3,322.00	\$11,900.32	\$10,271.28	\$3,138.60	\$9,890.00	\$38,522.20
중복비율	9%	31%	27%	8%	25%	100.00%
의무분담금	\$1,643.63	\$5,661.41	\$4,930.90	\$1,461.01	\$4,565.65	\$18,262.60
의무구독종수	9종	11종	6종	10종	6종	42종
절감구독종수	1종	14종	13종	8종	13종	49종
실제분담금	\$1,132.00	\$5,836.32	\$5,900.00	\$1,494.28	\$4,710.00	\$18,262.60
절감금액	\$2,190.00	\$6,064.00	\$5,181.28	\$ 1,644.32	\$5,180.00	\$20,259.60

2001년도는 중복구독잡지종수를 전년도와 관련하여 조정하였기 때문에 각 도서관의 중복구독종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중복구독잡지종수는 565종에서 91종으로 감소하였고 이것을 도서관별로 보면 경성대학교도서관은 중복구독종수가 101종에서 10종으로, 동아대학교도서관은 176종에서 25종으로, 동의대학교도서관은 107종에서 19종으로 신라대학교도서관은 85종에서 18종으로 인제대학교도서관은 96종에서 19종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따라서 분담수서가 의도하였던 본래의 목적대로 중복구독잡지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복구독종수는 분담수서에서 가장 큰 영향 요인이기 때문에 중복종수의 현저한 감소가 각 대학에 배정하는 의무분담금, 의무구독종수, 절감구독종수, 절감비용에 영향을 끼친다. 중복구독종수에 의해 의무분담금이 산출되고 의무분담금 내에서 의무분담구독잡지가 배정되고 절감구독잡지종수와 절감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분담수서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중복구독잡지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도서관이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국 어느 시기에 가서는 중복구독잡지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절감비용 효과는 대체로 분담수서 시행 첫해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새로운 회원교인 울산대학교 도서관을 포함하여 2002년도 6개 도서관의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 운영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 부산·경남지역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2001학년도 구미학술잡지 분담수서최종집계표(2000, 10).

〈표 4〉 2002년도 외국학술잡지 분담수서 운영현황²¹⁾

도서관명 구분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합 계
중복구독종수	114종	271종	183종	124종	259종	158종	1,109종
중복금액	\$65,758	\$151,386	\$94,103	\$35,784	\$119,660	\$93,642	\$560,333
중복비율	12%	27%	17%	6%	21%	17%	100.00%
의무분담금	\$35,808	\$80,568	\$50,728	\$17,608	\$62,664	\$50,142	\$298,400
의무구독종수	57종	152종	84종	59종	120종	86종	558종
절감구독종수	57종	119종	99종	65종	139종	72종	551종
실제분담금	\$32,503	\$82,372	\$52,236	\$17,068	\$63,253	\$50,142	\$298,114
절감금액	\$33,255	\$69,014	\$41,867	\$18,176	\$56,407	\$43,500	\$262,219

〈표 4〉에 따르면 2002년도에는 중복구독종수가 2001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울산대학교도서관을 분담수서에 포함시키면서 2001년도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6개교 도서관이 제출한 외국학술잡지 구독예정목록을 조사하고 중복구독잡지목록을 재 작성하여 의무분담금 산정공식에 따라 의무분담금과 의무구독잡지를 배정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2002년도의 절감비용은 울산대학교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도서관에서 실제 순수절감 비용은 여기에 나타난 금액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속간행물은 계속 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독이 필요하며 특성상 구독을 중단하면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구독결정이나 구독취소가 쉽지 않은 자료이다. 그러므로 1999년도 4개교 도서관이 분담수서시스템을 시작할 때 의무분담구독잡지를 배정 받은 도서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구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울산대학교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중복구독종수가 2002년도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술잡지는 계속 구독을 위해 잡지구독종수에 따른 자료예산이 책정되며 고정적인 지출항목이 된다. 그러므로 비용절감으로 유용성을 규명할 때 해당 년도의 절감비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절감비용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절감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분담수서를 하지 않았으면 해마다 구독했어야 할 절감구독자료의 구독료만큼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잡지 구독료의 지속적인 절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적은 의무분담금으로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용측면에서 분담수서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21) 부산·경남지역대학교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2002년도 구미학술잡지 분담수서 최종집계표(2000, 10)

VI. 요약 및 결론

부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는 1997년 8월 경성대학교도서관, 동아대학교도서관, 동의대학교도서관, 신라대학교도서관 등 4개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잡지 1,500여종의 목차 및 원문과 14,000여종의 학술잡지 목차를 제공하는 학술잡지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IMF로 인한 외환 위기가 닥쳐오자 외국학술잡지 구독을 위한 예산문제가 화급한 사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 협의회는 각 도서관의 외화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의 분담수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참여도서관들이 구독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의 상당한 종수가 상호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따라서 중복구독잡지 중 각 도서관의 핵심잡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중복 잡지를 분담수서하는 경우 도서관의 비용절감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학술잡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1998년 협의회 산하의 도

서관간 학술잡지 분담수서를 위해 실무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검토작업 결과 분담수서규정이 작성되었다.

최초의 분담수서를 위한 협력에는 경성대학교도서관, 동의대학교도서관, 신라대학교도서관, 인제대학교도서관 등 4개 대학도서관이 참여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이들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를 대상으로 중복구독잡지목록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각 도서관들이 분담하여 수집할 잡지의 종류를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1999년도 의무구독잡지를 배정하였다. 분담수서를 시작할 당시 그 대상은 인쇄형태의 외국학술잡지(구미학술잡지)에 한정되었다.

학술잡지 분담수서의 업무처리 절차는 각 도서관으로 하여금 익년도의 구독예정자료 목록을 핵심자료와 분담대상자료로 구분하여 제출하게 하고 회장교가 이것을 가지고 참여도서관들 간에 중복구독되고 있는 학술잡지를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중복구독잡지목록에 따라 중복구독자료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시 도서관별 의무분담금과 의무구독잡지를 배정한다. 그 배정방법은 각 도서관별로 산출된 중복구독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중복구독금액을 산출하고 도서관별 중복구독금액을 전체중복구독금액으로 나누어 중복비율을 도출해 낸다. 중복비율과 도서관별 중복구독금액을 곱하여 의무분담금이 산출되고 의무분담금 내에서 임의로 의무분담구독잡지가 배정된다. 배정된 의무구독잡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복구독하는 도서관간 합의를 거쳐 비슷한 금액의 다른 잡지와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조정한다.

이 배정방식은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분산식 분담수서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도서관계에서 사용되었던 분산식 분담수서 방식은 대체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 도서관의 의무구독잡지를 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담방식은 어느 도서관에 어떤 주제를 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도 난해한 문제였다. 이에 비해 부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정보교류협의회 분담수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의무구독잡지 배정방법은 주제가 아니라 각 도서관들이 기왕에 구독하고 있었던 학술잡지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만을 추출하고, 이 중복잡지들을 각 도서관별로 분담하여 수집하도록 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복잡지 중에서 참여도서관별 의무분담잡지를 배정하는 방식은 중복종수의 구독료를 기초로 하고 그 종류(title)는 임의로 배정하였다.

이와 같이 의무구독잡지의 종류(title)를 임의로 배정한 것은 참여도서관들의 성격이 모두 일반종합대학교로서 각 도서관들이 어떤 특정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 주제에 걸쳐 골고루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제 별로 분담을 하는 경우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이를 성사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분담수서시스템은 현재까지 4년간의 시행기간을 거쳤는데, 그 결과의 분석에 따르면 구독비용절감 및 이용 가능한 잡지종수의 증가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담수서시스템의 시행 첫해인 1999년도에는 중복구독잡지의 상당량이 참여도서관별 의무분담구독자료로 배정됨으로써 전체 중복구독종수가 662종에서 282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술잡지 구입비용 절감효과는 171,331.32 달러에 달하였다.

시행 3년째인 2001년도에는 전체 중복구독종수 91종을 조정한 결과 42종을 의무구독잡지로 배정함으로써 49종의 중복잡지 구입을 배제하였다. 시행기간이 길어지면서 매년 중복종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절감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학술잡지의 구입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다년간 연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시행 첫해의 비용절감 효과가 분담수서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비용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학술잡지의 이용측면에서 볼 때도 각 도서관들의 모든 이용자들이 전체 참여도서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학술잡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종수의 외국학술잡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협의회의 분담수서시스템은 최순철이 분담수서의 효과²²⁾라고 말한 바 있는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집행, 자료의 다양화와 이용효율 증대, 자료수장 공간의 절

22) 최순철은 분담수서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 2) 이용자 입장에서 여러 종류의 학술잡지의 이용가능성
- 3) 제한된 서가의 공간 절약
- 4) 고가의 학술잡지를 공동 구입함으로써 최소 예산으로 자료 이용의 극대화
- 5) 소급적 이용가치가 낮은 학술잡지 구입에 대한 부담 감소

최순철,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와 공동수서에 관하여; 한국지역대학 연합소속도서관 을 중심으로” <http://kowon.dongseo.ac.kr/stork/asd/main.cgi?board=data> (2000.02.15).

약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 분담수서시스템의 시행과정에서는 약간의 문제들이 야기되었는데 이 협의회외의 분담수서시스템이 추후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1) 참여도서관의 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2) 분담수서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다른 필요한 학술잡지의 종수를 늘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3) 참여도서관들의 소장잡지목록을 분석하여 취약한 주제분야를 보강할 수 있도록 분담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 4) 중복구독잡지를 분담수서 함으로써 학술잡지의 구독종수가 통계상 감소하여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여 협력이 소극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담수서에 참여한도서관들의 구독종수 통계에 참여도서관 전체의 의무 분담구독종수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고로 미국의 대학도서관 기준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자료도 장서로 인정한다.
- 5) 분담수서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외국학술잡지 대상을 일본학술잡지는 물론 거의 중복구독하고 있는 전자잡지를 분담수서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6) 이용자들은 원하는 자료를 즉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관에 소장되어 있던 잡지가 분담수서로 인해 타 도서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신속한 자료의 제공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